

K-water, 성남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완공

성남정수장에 고도산화정수처리시설이 완공됐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성남정수장에 711억원을 투입해 고도산화정수처리시설을 설치했으며 2월23일 완공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월22일 발표했다.

성남정수장은 팔당댐에서 취수한 물을 정수해 경기도 남부 7개시 300여만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기준 78만6000m³에 고도정수처리용량은 63만m³로 나타나고 있으며, 500ml 기준 하루 4만5000병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완공해 재해·사고 발생지역에 비상용 병물을 공급하는 시스템도 갖추었다.

고도산화정수처리시설(AOP)은 기존의 정수처리 공정에 오존(약품)처리와 입상활성탄 공정을 추가해 미량의 유해물질과 불쾌한 맛·냄새를 제거하는 선진 정수처리공법을 적용했다.

수자원공사는 성남정수장을 시작으로 수도권 8개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2015년까지 도입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공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22>